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갑니다”

양구군·도·기관·단체
중앙시장서 캠페인
연말 실적우수 시장
시장방문 적극 독려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 전
통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30일 오전 양구 중앙
시장은 모처럼 활기찬 모습
을 보였다.

5일장이 선 이날 장터에 발
걸음을 한 주민들에 더해 ‘전
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에 참여한 도와
양구군 공무원, 기관·단체장
등 500여명이 장바구니를 들
고 생활필수품과 채소 등을
구입했다. 도 정보산업과, 도
시재생과 등의 직원들이 이날
캠페인에 대거 동참해 재래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 지난 30일 양구 중앙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에 참여한 정만호 경
제부지사, 조인목 양구군수, 이상건 군의장, 김규호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장 살리기에 힘을 보탤다.
캠페인에 참여한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조인목 양구
군수, 이상건 군의장, 김규호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들은 장을 보면서 상인들로

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도 전통시장 회생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과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
로 정하고 시장 방문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장을 보거나 행사물품 구입
등의 실적이 우수한 군청 내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
할 계획이다.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는
“재래시장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의 영향으로 더욱 어
려운 상황”이라며 “재래시장
과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급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
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고 말했다.

양구=심은석기자 hsilver@

강원 건설업계 수주가뭉 심각 '예년 절반수준'

올해 1분기 수주액 6161억원

전년 동분기보다 88.3% 감소

민간분야 56%·관급 31% 줄어

올해 1분기 강원 건설수주액이 1년전보다 4조원 이상 감소한 6100억여원을 기록, 예년 1조원대의 수주 실적에도 못 미치며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 건설수주액이 1633억원으로 2005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다.

강원통계지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년 3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도내 건설수주액은 6161억여원으로 전년동분기(5조3035억여원)보다 4조6874억여원(88.3%)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국의 건설수주액이 32조7205억여원에서 29조6402억여원으로 3조802억여원(9.4%)의 감소액을 기록, 강원도가 전국 주요 건설수주액 감소지역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도내 건설수주액은 예년 실적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1분기 평균 건설수주액 1조948억여원의 56.2%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에는 도내 민간·민자(민간투자사업) 분야 공사 증강 등 안인화력발전소와 같은 대형 토목공

사가 발주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민간·민자분야는 물론,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물량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도내 민간분야 건설수주액은 올해 1분기 1158억여원으로 전년동분기(4조2900억여원)보다 4조1741억여원(97.2%) 줄었으며, 민간분야 건설수주액도 동기간 7759억여원에서 3369억여원으로 4390억여원(56.5%) 감소했다.

도내 건설사들의 주력 수주처인 공공분야의 건설수주액도 1633억여원으로 전년동분기(2375억여원)보다 742억여원(31.2%) 줄었다. 통계수첩 시작기점인 2005년부터 2014년 1분기(1183억여원), 2017년 1분기(1395억여원) 이후 역대 세번째로 적은 수주액이다. 신관호



강원도와 양구군은 30일 양구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도·양구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강원도와 양구군은 30일 양구 중앙시장 일대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만호 도경제부지사와 조인목 군수, 이상건 군의장,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 회장 등 도단위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공무원 등이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시장에서 각자 내기 오찬과 함께 상인들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인상, 저성장·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재용